

# “이론”에의 관심과 저항, 또는 이론화의 경향과 반이론의 논리\*

—이십세기 후반 미국 문학 비평계에서의 “이론”에 대한 논의

張 敬 烈

(서울대학교 英文學科)

## I. “이론”에의 관심과 저항

비평 이론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비평 이론이란 비평의 당위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또는 비평 행위 자체를 가능케 하고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일종의 <부차적 담론>(meta-discourse)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정의를 따르는 경우, 실제의 비평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비평 이론이란 기껏해야 퇴행적인 자기현시(自己顯示)일 따름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이론을 위한 이론화>가 갖는 지의성(恣意性)과 관념성, 폐쇄성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경계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비평 이론을 문학의 분야와 관련짓는 경우, 문학 비평이 문학 작품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문학 비평의 이론화란 문학 비평이 구체적으로 시도되는 가운데 암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어 왔다. 그리하여, 문학 비평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개의 경우 <비평가> 자신의 몫이었으며, <이론가>라는 이름에 값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독자적 위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학에서 문학을 담당하는 많은 교수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 왔던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즉, 문학 강의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다름아닌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이며, 강의를 하다 보면 비평에 필요한 적절한 이론이 암묵적으로나마 제시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이들은 별도의 비평 이론 강의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요컨대, 비평 이론 자체의 독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의 미국 문학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론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이상과 같은 경향은 더 이상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이론이 실제 비평이란 속박에서 벗어난 듯이, 아니 실제 비평을 떠나 독립적인 존재 거점을 확보한 듯이, 미국 문학계의 온 시선은 이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신비평과 함께 막을 열었던 이론바 <실제 비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론의 시대>가 도래한 듯한 느낌까지 준다. 미국 문학계의 이와 같은 상황은 *Critical Inquiry*의 편집장이었던 W. J. T. 미첼(Mitchell)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잘 반영되고 있다.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지난 20년간 이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대학 내의 문학도들에게 “인기” 분야의 하나가 되었다. 구조주의, 기호론, 해석학, 해체구성(deconstruction), 말화 행위(speech-act) 이론, 수용 이론, 심리분석 이론, 페미니즘, 맑시즘, 그밖에 다양한 철학적 “접근 방법”이 전문적인 문학 연구 체계 내에서 친숙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이론가든 “이론가”를 교수 명단에 올려놓지 않은 대학의 어문학과는 명백히 시대 조류에 뒤진 학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문학사의 한 시대로 분류되는 전통적 학문 영역에서 훈련을 거친 전문가에게조차 어떤 종류의 이론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널리 일반화된 가정에 의하면, 누구나 자신의 실제 행위를 통제하는 이론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가나 유일하게 문제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론적 가설에 대해 의식치 못하고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학문과 해석의 과정에 끌려다니는 단순한 실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1)</sup>

이런 시대 조류에 맞춰, 문학 비평 이론은 당연히 독립된 학과 과목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심지어 비평 이론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나 연구 기관까지 신설되게 되었다.<sup>2)</sup> 아울러 비평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Critical Inquiry*, *Glyph*, *New Literary History* 등 수많은 학술 잡지들이 발행되어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sup>3)</sup>

미국 문학계가 이와 같이 이론에 대해 새삼스러운 관심을 보이게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여기에는 우선 <현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조망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장-프랑수와 료따르(Jean-François Lyotard)의 논의에 기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근대 사회의 정신 세계를 정치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지배해 왔던 이른바 “대담화”(grand narrative)<sup>4)</sup>가 오늘날에 이르러 점차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이와 같은 변화의 근본적인 동인은 “기술”을 모든 것에 우선시키는 현대 서구 사회의 산업화에서 찾을 수 있거니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의 “목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수행력, 즉 투입한 것에 상응하는 출력을 얻기 위한 최상의 효율적 수행 능력”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sup>5)</sup> 료따르는 지향 목표가 바뀐 오늘날의 사회와 그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있거니와, 그의 진단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만일 논의의 초점을 문학 분야에 맞추는 경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문학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배적인 담론—이러테면, 신비평적 형식주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다원

1) W. J. T. Mitchell, “Introduction: Pragmatic Theory,” *Against Theory: Literary Studies and the New Pragmatism* (Chicago: U of Chicago P, 1985), 1-2.

2) Murray Krieger가 창시한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의 School of Criticism and Theory가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3) *Critical Inquiry*는 1974년에, *Glyph*는 1977년에, *New Literary History*는 1969년에 각각 창간되었다.

4)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 Geoff Bennington &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4), 31-32 참조.

5) Lyotard, 46.

주의, 프로이트적 심리분석—의 효용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문시되기 시작했음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문학적 작업의 정체와 의미를 드러내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들 지배적인 담론의 효용성 자체가 의문시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들 담론에 대한 비판 작업과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담론 추구로 모아지게 되었다. 즉, 이론 자체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게 된 것이다. “피터 콜리어(Peter Collier)와 헬가 가이어-라이언(Helga Geyer-Ryan)의 지적대로, “보편적이고 총체론적(holistic)인 가정에서 근거를 둔 비평적 주장은 점점 더 ‘비뚤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이들 기존의 주장에 대항하여 “종합화하려는 의도가 덜한 움직임, 이를테면 ‘해체구성,’ ‘신역사론,’ ‘페미니즘’ 등”의 새로운 담론이 세력을 얻게 된 것이다.<sup>6)</sup> 물론 “이들 역시 ‘대담화’만큼이나 나름대로 파당적이긴 하지만, 자체의 편협성을 인정하고 가정한다”<sup>7)</sup>는 점에서, 아울러 료파르트의 표현대로 “목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의 지배적인 담론과 구분된다.

이론에 대해 미국 문학계가 새삼스러운 관심을 보이도록 유도한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담론들의 근원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이론 체계와 철학 체계 대부분이 불란서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즉,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를 선두로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 미셸 후코(Michel Foucault),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 자끄 라캉(Jacques Lacan), 윌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란서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이로 인해 오늘날 미국 문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온통 불란서인들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할 지경이다. 문제는 무슨 이유로 이처럼 불란서적 사유 방식이 미국 문학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가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레이먼 셀든(Raman Selden)의 지적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셀든에 의하면, “폴 드 만(Paul de Man)과 [그를 정점으로 하여 모인] 그밖의 비평가들이 낭만주의 시에서 자유로운 해체구성의 기회를 발견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낭만주의 전문가들인 이들이 데리다에게 경도됨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이런 종류의 지적으로 미국 문학계에 대해 불란서적 사유 방식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해명하기란 어렵다. 데리다의 해체구성 이외에도 미국의 비평가들에게 매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란서적 사유 방식과 이론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로 인해 아트 버만(Art Berman)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각별히 주목될 만한 것이다.

많은 20세기의 불란서 문인들이 현대 철학사는 명백히 데카르트와 얼마간의 공백기 후에 등장한 칸

6) Peter Collier & Helga Geyer-Ryan, “Introduction: Beyond Postmodernism,” *Literary Theory Today*, ed. Peter Collier & Helga Geyer-Ryan (Ithaca: Cornell UP, 1990), 2.

7) Peter Collier & Helga Geyer-Ryan, 2.

8) Raman Selden,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New York &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5), 92.

트에서 시작하여 하이데거에 이르는 독일 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불란서 사상(즉, 자신들 것)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반면에 영미적 시각에서 보던 18세기 영국의 경험주의가 철학사의 기본을 이루고 있거니와,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실증주의자들이나 “일상 언어” 철학자들의 작업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미국에서의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수용은 바로 이러한 영미적 시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왜 데리다의 철학적 사유가 <자기나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미국의 문학 비평가들에게 매력을 갖게 된 것일까? 명백히 미국 문학계의 전통 안에서는 철학적 관념주의, 헤겔, (비록 실존주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였지만) 유럽의 현상학, 맑시즘이 문학 비평가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문학계의 저변에는, 인간의 창조적 인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경험주의와 과학적 방법론이 초래한 결정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경향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낭만주의에 대해 신비평가들이 느꼈던 매력을 해명하는 데에도 동일한 문제 의식이 거론될 수 있다.<sup>9)</sup>

요컨대, 신비평의 성립 동기와 전개 과정에서도 확인되듯이<sup>10)</sup>, 오늘날 미국 문학계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불란서 철학에의 경도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물질만능주의 및 비인간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반발로 이해될 수 있다. 자신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일종의 위기 의식을 느끼는 미국의 문학도들이 관념 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불란서 현대 철학에서 일종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돌파구를 찾는 작업이 다름아닌 이론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문학계가 이론에 보이는 관심은 사실상 <관심의 차원>을 넘어 <열광의 차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긍정적인 시각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론에 저항감을 느끼지만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회의에서 강연을 하거나, 학술지를 창간하고, 명망있는 출판사에서 저서를 출간하거나 학술지에 글을 발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일부의 문학자들, 즉 “거의 모두가 문학 이론가인 교수직의 몇몇 사람들”임을 지적하면서, 그 자신이 역시 이론가인 윌리엄 E. 케인(William E. Cai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특권”이란 어떤 제도 내에 있다 보면 으레 인정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학계에서 특권은 때때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되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즉, 최상의 존경을 받는 이론가들은 점점 더 그들의 점유물인 유리한 담론 속에 몸을 숨김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다만 자기네들끼리 말을 주고받기 위해 고립 속에서 나올 뿐이다. 오늘날의 문학 이론이 격렬하고 자극적이지만, 다만 그 자체의 범주 안에서만 그리할 뿐이다.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일상

9) Art Berman, *From the New Criticism to Deconstruction: The Reception of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Urbana: U of Illinois P, 1988), 200.

10) 장경렬, 「신비평과 그 이후의 미국 비평—새로운 비평적 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외국문학』 제 19호 (1989년 여름), 120-22 참조.

적인 영문학 연구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말할 것도 없이, 위의 진술이 이론에 대한 미국 문학계의 관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론을 위한 이론>이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전개되고 있을 뿐, 실제 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들과 유리된 채 경외(敬畏)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케인의 지적은 이론이란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하고 자극적”인 주연들의 연기를 바라보기만 할 뿐인 다수의 <강요된 관객들>이 느끼는 심경을 대변하는 것이리라.

상황이 이러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론에 대한 저항감 혹은 반감이 표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문학의 위기」(“The Crisis in English Studies”)라는 글에서 월터 잭슨 베이트(Walter Jackson Bate)는, 인문학이 “자기 파괴의 길로 접어든 채 일찌기 겪어 본 적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음을 개탄하면서, 그 이유를 “문학 이론”에 대한 점증적인 “관심의 집중”에서 찾고 있거니와<sup>12)</sup>,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이론에의 저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저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만으로도 아주 손쉽게 무력화(無力化)될 수 있다. 즉, 이론에 대한 “관심의 집중” 때문에 인문학이 “허약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인문학이 “허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관심의 집중”이 뒤따르게 된 것인가?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베이트의 비판은 기득권자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일 수도 있고 <공격적인 자기 방어><sup>13)</sup>일 수도 있다. 결국 <이론에의 저항>이 이러한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국외자의 불만 토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베이트는 위의 글에 대한 스탠리 휘쉬(Stanley Fish)의 비판에 답변하면서, “관심의 폭을 넓혀, 최근의 이론 이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론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글을 쓴 것이라는 변명과 함께, “차라리 해체구성과 관련된 논의의 부분을 글에서 삭제했어야 했었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sup>14)</sup>

이런 이유 때문에,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에 대한 케인의 주목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이드 자신이 이른바 소수의 특권층에 속하는 이론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론을 위한 이론>을 경계하고 있거니와, 케

11) William E. Cain, *The Crisis in Criticism: Theory, Literature, and Reform in English Studie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4), 247-248.

12) Walter Jackson Bate, “The Crisis in English Studies,” *Harvard Magazine* (Sept.-Oct. 1982). Paul de Man, “Return to Philology,” *The Resistance to Theor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6), 22에서 재인용.

13) “공격적인 자기 방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드 만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트와 같은 사람들이] 그 정도 공격적으로 방어적인 것을 보니, 정말로 대단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Return to Philology,” 23).

14) Walter Jackson Bate, “To the Editor of *Critical Inquiry*,” *Critical Inquiry* 10.2 (1983), 370.

인은 이에 동조하여 “오늘날 너무나도 명백하게 느껴지는 위협—즉, 이론 자체가 지니는 매력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론’이 사회나 문화와 접촉하지 않은 채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 되는 데 만족하고 말 위험”<sup>15)</sup>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케인은 사이드가 행한 “이론”과 “비판 의식”(critical consciousness) 사이의 구분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판 의식이란 이론에의 저항—즉, 이론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구체적 체험이나 해석이 유도하는 이론에의 반발—을 자각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비평가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이론에의 <저항>을 준비하고, 역사적인 현실을 향해 이론을 개방하는 데 있다. 아울러, 모든 이론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해석 영역을 미리 상정하고, 일단 상정한 후엔 그 영역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거니와, 그 영역 바깥쪽에 또는 그 건너편에 놓여 있는 일상의 현실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이끌어내어 설명하는 데 비평가의 임무가 있다.<sup>16)</sup>

사실상 이미 앞서 인용한 케인의 발언이 의도하는 바는 이론가와 그의 이론을 실제의 문학 연구에 적용할 사람들 사이의 괴리를 비판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거니와, 동일한 주장을 우리는 바로 위에서 인용한 사이드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이론>과 <실제> 사이의 조화를 주장함으로써, 사이드나 케인은 최근 미국 문학계가 보이는 이론에의 관심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장이 <실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닌 <이론> 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무대>를 개방해야 할 주체는 <연기자>들이지, <강요된 관객>이 아닌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티븐 냅(Steven Knapp)과 월터 벤 마이클즈(Walter Benn Michaels)가 1982년 *Critical Inquiry*의 여름호에 발표한 「이론에 반대하여」(“Against Theory”)라는 논문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논문이 <이론>에 저항하여 <실제> 쪽에 서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어적이거나 자기 변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첼의 지적대로, 「이론에 반대하여」는 이론이 “단순히 자체의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이론 쪽에서의 “방어가 아주 광범위한 전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sup>17)</sup> 이 때문에 냅과 마이클즈의 논의는 이론에 저항감을 느끼던 사람들에게겐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병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논의가 이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론가들이 보여 온 외래의 철학과 논리에 대한 관심 자체를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냅과 마이클즈의 논리 이면에는 순수하게 미국적인 철학 전통, 즉 <실용주의>(pragma-

15) Cain, 9.

16) Edward W. Said, “Travelling Theory,” *Raritan*, 1 (Winter, 1982), 59. Cain, 9에서 재인용.

17) Mitchell, 3.

tism)로의 복귀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마도 우리는 이들의 논리를 검토함으로써 미국의 문학계가 새롭게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어지는 논의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대응 관계에 대한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를 문제삼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II. Knapp과 Michaels의 반이론의 논리

넵과 마이클즈는 「이론에 반대하여」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론”이란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업 중 하나의 특정한 작업을 지칭한다. 즉, 우리가 “이론”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텍스트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를 뜻한다. 때때로 이 용어는 개별적 작품에 대한 해석과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분야, 이를테면 서술론(narratology)이나 문체론, 운율론 등에 적용되기도 한다. 비록 이들 분야 역시 일반 원리를 내세우긴 하지만, 우리의 판단으로 이들은 본질적으로 귀납법적 경험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론에 반대하는 우리의 논의가 이들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18)</sup>

우리는 무엇보다도 넵과 마이클즈가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크게 이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텍스트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이며, 다른 하나가 “귀납법적 경험론”에 바탕을 두는 “작업”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이분화가 가능하다면, 이들이 “이론”이란 이름 아래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은 “귀납법적 경험론”과 대응 관계에 놓이는 것, 즉 선형주의적 관념론이다. 말하자면, 세계 이해의 원칙과 방법을 선형적으로 규정하는 “특정한 작업”이 이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서로의 약점이 장점이 되고 또한 서로의 장점이 약점이 되는 경험주의와 선형주의라는 두 인식론 사이의 해묵은 논쟁의 재연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넵과 마이클즈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유럽의 선형주의적 철학 전통에 반발하여, 영미의 경험주의적 철학 전통을 재천명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양상과는 달리, 그들의 논의에서는 어느쪽이 객관적 지식 또는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다. 넵과 마이클즈의 비판이 일차적으로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론들”을 겨냥하고 있음에서 암시되듯이,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객관적 지식도, 보편적 진리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대담화〉의 권위가 상실된 요즘의 시대 상황에서, 객관적 지식이나 보편적 진

18) Steven Knapp & Walter Benn Michaels, “Against Theory,” *Critical Inquiry* 8.4 (1982), 723. 이 논문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AT”로 밝히기로 함.

리에의 도달 가능성을 믿는 본질론(essentialism)은 시대착오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론>에 대한 넵과 마이클즈의 비판이 “올바른 [또는 객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대체 이론,” 즉 불란서에서 수입된 최근의 이론들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넵과 마이클즈의 인식론적 배경을 이루는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경험주의가 아니라, 본질론과 반본질론 양자 모두를 극복의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경험주의인 것이다. 이를 우리는 실용주의(pragmatism)라는 미국 철학의 전통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도로 단순화하자면, 실용주의는 19세기말 찰스 퍼어스(Charles Peirce)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제창하여 존 듀이(John Dewey)와 C. I. 루이스(Lewis)가 계승하고 발전시킨 철학 체계로서, 이 체계 내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목적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효율성과 유용성이라는 조건에 따라 체험의 이론화가... 유도되고 정당화된다.”<sup>19)</sup> 이런 이유로 인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론이란 추론 작업을 위한 방책일 뿐, 실용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론의 옳고 그름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문제의 방책이 얼마만큼 유용성과 명증성을 갖는가”의 측면에서, 아울러 그 방책을 채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는가”의 측면에서, 이론의 가치는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sup>20)</sup> 요컨대, 실용주의에서 이론이란 선형적으로 진리치를 부여받은 절대적 지도 원리가 아니라, 그 실용성이 경험적으로 가늠되는 일종의 상대적 도구일 따름이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이론은 체험이나 실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론은 체험과 실재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된다. 실용주의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 이론의 실용성을 판단하는 데 준거가 되는 실재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pragmatism>이란 용어의 어원이 <실재>나 <행동>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πράγμα>에 있다는 제임스의 설명<sup>21)</sup>에 유의하기 바란다. 아마도 넵과 마이클즈가 <실재> 쪽에서 서서 <이론>을 비판하는 이유를 우리는 아마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넵과 마이클즈의 실용주의적 논의는 효율성이 증시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또하나의 새로운 담론일 수 있다.

이론에 대한 넵과 마이클즈의 비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론에 대한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그것이다.<sup>22)</sup> 전자의 경우엔 <의도>와 <의미>가 논의의 핵심부에 놓이며, 후자의 경우엔 <이론>과 <실재>가 논의의 핵심부에 놓인다. 본고에서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오늘날 미국 문학계의 특징적 양상 중 하나인 <이론>과 <실재>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후자 쪽에

19) H. S. Thayer, “Pragmatism,”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Paul Edwards (New York: Macmillan Co. & Free Press, 1967), 6: 435.

20) H. S. Thayer, 6: 435.

21) H. S. Thayer, 6: 433.

22) “존재론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이란 용어는 넵과 마이클즈가 사용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Against Theory,” 736-37 참조.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로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론>과 <실제>에 대한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는 선형적 지배 논리로서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실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이나 믿음—요컨대, 실용주의적 입장이나 믿음—의 옳음을 주장하는 형태로 제시된다면, 또하나의 <공격적인 자기 방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리라. 바로 이 때문에, 넵과 마이클즈는 모든 인식론적 논의에 기본이 되는 개념, 즉 <믿음>을 우선 문제삼고 있다.

넵과 마이클즈에 의하면, “인식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론가의 목적은 해석자가 해석 대상과의 직접적 만남에 근거하여 해석을 행하도록 하는” 데, 말하자면 “해석자가 특정한 믿음의 영향을 받아 대상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AT,” 737). 그러나 넵과 마이클즈는 그 누구도 “믿음”(belief, 신념)에서 벗어나 “인식론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획득하기란 불가능”함을 지적한다(“AT,” 737).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답을 위해 이들은 “믿음에서 탈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물중의 하나인 스텐리 휘쉬(“AT,” 737)의 논의에 주목한다. 특히 넵과 마이클즈는 그의 저서 『이번 학기 강의에 정해진 텍스트가 있나요?』(*Is There a Text in This Class?*)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논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휘쉬는 “누군가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자신이 믿고 있지 않은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3)</sup> 바꿔 말해, 모든 사람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것”임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참된> 것”이어야 한다. 즉, <참된 믿음>이란 개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을 초월하여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고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따라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선행하는, 또는 믿음과 관계 없는 <지식>(객관적 지식이나 보편적 진리)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논리는 모든 믿음을 배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의 영향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 즉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정해 볼 수 있으리라.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모든 믿음을 버릴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에서 이와 같은 경지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모든 믿음이 배제된 상태가 조건없이 “<참된> 것”이란 생각 자체가 바로 <지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믿음을 배제하려 함도 모든 믿음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무언가의 <지식>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상태를 추구함도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믿음>

23)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Cambridge, MA: Harvard UP, 1980), 361. 이 책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ITTC”로 밝히기로 함.

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휘쉬의 말을 빌리면, “자신이 서있는 입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어디엔가 다른 곳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 어디엔가 다른 곳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곧 새롭게 자신의 입장을 갖는 것이 된다”(ITTTTS, 360). 따라서 휘쉬는 믿음이나 “가정”(assumption)이 배제된 중립적 “입장”이란 있을 수 없음을 힘주어 말한다(ITTTTS, 361).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하나의 사실은, “지식과 참된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AT,” 738)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지식>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성립될 수 없고, <참된 믿음>이 없다면 <지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누군가가 무언가의 믿음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면, <믿음>과 <참된 믿음>이란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는 두 개의 용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경우, <참된 믿음>과 <지식>, <지식>과 <믿음>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일 수 있다. 만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지식>이란 역설적으로 <믿음>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 즉 객관적인 것일 수 없다. <지식>의 드러냄은 곧 <믿음>의 드러냄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따르는 경우, 누구도 자신의 논의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휘쉬가 믿음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 후, 그의 논의가 “실제 문학 비평을 수행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ITTTTS, 370)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아마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휘쉬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것”(ITTTTS, 370)이라고 답변한다. 이러한 답변이 나오게 된 이유는 자명하다. 휘쉬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거슬린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고 있는 것이다. 넵과 마이클즈에 의하면, 휘쉬의 “독창성”(“AT,” 738)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실질적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단언”하는 “대부분의 이론가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론과 관련하여 그 어떤 실질적 활용 가치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AT,” 738).

그러나, 넵과 마이클즈에 의하면, “그의 논의가 역사적 상대주의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그 나름의 대응”(“AT,” 739)을 하면서, 휘쉬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적하는 이론바 휘쉬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가 말하는 “진보 개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휘쉬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견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견해나 다른 사람들이 천명한 견해보다 진전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진보 개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의하면 실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념을 굳게 지키려다 보면 이에 뒤따르는 하나의 불가피한 결과가 바로 진보해 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ITTTTS, 361-62). 이어서, 우리는 “진보 개념과 관련하여 휘

쉬가 제시하는 두 가지 다른 시각에 주목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시드니, 드라이든, 포우프, 코울리지, 아놀드” 등과 같은 비평가의 작업을 “문학과 문학적 가치를 단순히 우리 만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남긴 다소 서투른 행적의 기록”으로 여길 수도 있으며, “그들의 작업을... 열등한 것이 아닌, 단지 다른 가정을 지닌 문예 문화의 확장”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다(*ITTTTS*, 367-68)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휘쉬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후자의 시각이다.

바로 이 점을 문제삼아 넵과 마이클즈는 휘쉬 자신이 “믿음”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반된 믿음에 비하여 더 나은 것이 없으며, 양자는 “단지 다를 뿐”이라는 투의 시각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각을 설정함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상정함과 다름없다. 이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진정 아무런 믿음도 지니지 않은 채 믿음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 즉 믿지 않으면서 아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AT,” 738]

말하자면, 자신의 믿음을 남의 믿음과 동일한 거리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휘쉬는 중립적 입장이 가능한 것처럼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위의 인용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넵과 마이클즈가 지적하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즉, <믿는 것>(믿음)과 <아는 것>(지식)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휘쉬는 마치 <지식>이란 <믿음>의 바깥에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투의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암시는 <믿음>과 <지식>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과 <지식>을 분리함으로써 휘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넵과 마이클즈에 의하면, 믿음과 분리된 지식의 도움을 받아 믿음의 “바깥쪽”에 설 수 있는 기회(“AT,” 739)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넵과 마이클즈는 <믿음>의 바깥쪽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 가능성이 주어짐에 주목한다. 먼저 “해석 대상”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찰할 것인가가 그것이다(“AT,” 739). 휘쉬의 경우, 선택은 과연 어느쪽인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는 “믿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거니와, 이로 인해 대상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관찰할 수 없음을 미리부터 전제하고 있다. 즉, 전자에 대한 선택 가능성은 처음부터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검토한 바 있는 <믿음>에 관한 휘쉬의 이론적 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지식>의 <분리 가능성>을 상정함은 곧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론의 가능성>을 상정함과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론가의

목표가 개별적인 해석자의 “특정한 신념”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해석 대상과 직접 만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하는 데 있는 이상, 이론화란 <믿음>과 <지식>을 분리한 후 <지식>만을 취하는 작업이 아닌가? 그러나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과 <믿음>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면, <믿음>에 대한 <지식>은 곧 <믿음>에 대한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넵과 마이클즈의 말을 빌리자면, 휘쉬가 “믿음에 대한 성실한 논의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믿더라도, “믿음에 대한 성실한 논의는 다만 믿음에 대한 또하나의 <믿음>”(“AT,” 740)일 뿐이다. 결국, 휘쉬의 <이론화>가 <믿음>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의 “이론”은 “실제”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제공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며, 자신의 말따따나 “실제로 문학 비평을 수행하는 데”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넵과 마이클즈에 의하면, “믿음에 대한” 휘쉬의 “일반론적 논의”를 검토해 보는 경우, “결국 무언가 결과를 가져다 주었음이 판명”된다는 것이다(“AT,” 740). 말하자면, 이론의 무용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논의에서 무언가의 일반화된 <원리>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휘쉬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의도 역시 여타의 이론가들의 논의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 <이론>이 <실제>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리하여 “이론에서 실재를 끌어내려는 시도와 결별하기를 원”(“AT,” 741)하면서도, <믿음>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휘쉬는 스스로 자신을 또하나의 이론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제>의 바깥쪽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반론적 논의”는 어쩔 수 없이 “바깥쪽에서 실재를 지배”(“AT,” 742)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넵과 마이클즈의 진단이다. 그러나 “이론에서 실재를 끌어내려는 [모든] 시도(“AT,” 741)가 <분리 불가능>한 <믿음>과 <지식>사이의 분리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한, 휘쉬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실제의 바깥쪽 위치에 도달할 수 없”(“AT,” 742)다. 넵과 마이클즈가 전개하는 “실용주의적인 논쟁”(“AT,” 740)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놓인다. 즉, “바깥쪽에서 실재를 지배하기 위해 실제의 바깥쪽에 서고자 사람들이 시도하는 모든 편법에 주어지는 명칭이 다름아닌 이론”인 이상, “이론이란 다만 실체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 것”인 이상, 휘쉬의 이론적 기도와 함께 모든 “이론적 기도”는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AT,” 742).

이론에 반대하는 넵과 마이클즈의 이상과 같은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할 사항은,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과 지식 사이의 분리 불가능성이란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믿음과 지식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면, 이론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 역시 하나의 믿음일 뿐이며, 따라서 “실제로 문학 비평을 수행하는 데” 그들의 논리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바로 이와 관련하여, 또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들이 휘쉬에 동조하여 이론적 논의 또는 이론의 “실질적 활치”를 부정하면서도, 여전히 휘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모종의 유용용 가능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도달한 바의 결론이 이론의 포기라는 점에서, 다만 소극적 의미에서 유용한 결론일 따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론에 대한 부정은 곧 실제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들의 결론 역시 적극적 의미에서 유용한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 아니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논의도 다름아닌 <이론적 논의>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그들이 제시하는 <반이론>의 논리도 다름아닌 <이론화>의 논리이고, 그 자체가 또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지향하고 있다. 미첼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론에 반대하여]의 중심 주제는 이 논문의 비판 대상 못지않게 ‘이론적’이고, ‘실용주의적’ 혹은 직관적”<sup>24)</sup>이다.

### Ⅲ. 마무리 : 올바른 <이론에의 저항>을 위하여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론에의 반대>는 다만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될 수밖에 없는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물음에 대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변호가 가능하다. 즉, “문제의 방책이 얼마만큼 유용성과 명증성을 갖는가의 측면에서, 아울러 그 방책을 채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는가의 측면에서, 이론의 가치는 평가될 수 있”다는 관점을 다시금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맞추어,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는 적어도 이론의 가치를 명증한 논리에 의해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평가는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누구도 이 점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이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의 논리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기로 하자. 비록 이들의 논의가 명증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이들의 논의가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갖는가? 비록 나름대로 유용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실제로 <실제로> 수행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요컨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방책을 채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는가”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이들의 논의는 별다른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실제로 <실제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바깥쪽에서 실제로 지배하기 위해 실제의 바깥쪽에 서려는 사람들의 시도”라는 이유로 넵과 마이클즈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진실로 실용적인 가치를

24) Mitchell, 8.

지니는 이론은 냅과 마이클즈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해결책은 아마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모든 이론에 반대하고 진실로 실재를 증시한다면, 이론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고 다만 묵묵히 실재를 수행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실재에 진념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기 방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론의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론에 반대하는 논의는 여전히 불가피하다. 또한, 그 논의를 강력한 힘을 갖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냅과 마이클즈의 예에서 확인되듯이 자신의 논의를 이론적 시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스스로 이론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마치 언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바로 언어이듯이, 이론의 무용성을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바로 이론인 것이다.<sup>25)</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냅과 마이클즈가 <반이론>의 논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이론에의 저항>이 아니라 <이론에의 관심>을 숨기고 있는 <이론에의 저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명증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기도”와 “이론”은 포기될 수 없다. 언어란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되어야 한다는 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이론이란 “바깥쪽에서 실재를 지배”하기 위한 바람직하지 못한 시도라고 하더라도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바깥쪽에 서지 않고서는 대상에 대한 형이상학적 거리를 확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 대한 관찰과 비판도 또한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냅과 마이클즈가 그의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배”라는 단어는 이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느끼는 <피해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는 경우, <지배>라는 단어는 얼마든지 <관찰> 또는 <비판>이란 단어로 대체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문학 작품이란 인간의 삶을 바깥쪽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또한 문학 비평도 문학 작품을 바깥쪽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누구도, 이처럼 바깥쪽에 서기 위한 시도라고 해서, 문학 작품과 문학 비평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즉, 이론이 바깥쪽에서 실재를 관찰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는 이상, 비록 어떠한 이론도 문학 비평에 연루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냅과 마이클즈의 <반이론>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프랭크 렌트리카아(Frank Lentricchia)가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우리가 특히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25) 이와 관련하여, 언어적 의미의 허위성을 다름아닌 언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드 만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단정도 하고, 표명할 수 있기에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미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언어는 의미라는 것이 허위임을 제차 확인하면서 이를 되풀이하거나 또는 반영할 뿐이다”(Paul de Man, “Shelley Disfigured,” *Deconstruction and Critic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64).

이론에 반대함은 곧 자기 성찰에 반대함과 다를 바 없다. 말하자면, 어떠한 방식으로 텍스트와 자아와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또한 이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려는 시도에 반대함과 다를 바 없다. 이론에 반대함은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코 의심하지 않으려 함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sup>26)</sup>

요컨대, 이론을 거부함은 곧 자신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기회마저도 거부함과 다를 바 없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신 세계 자체를 거부함과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론은 포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기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론에 대한 저항 자체가 포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사이드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듯이, 〈이론에의 저항〉은 이론을 “역사적인 현실”이나 “일상의 현실” 쪽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론에의 저항〉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타율적 압력으로부터만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개방”이 결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론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방어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더욱 더 고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 방어 전략에 의해 고립되어 가는 이론은 이론다운 이론이라고 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이론다운 이론이라면, 〈이론에의 저항〉을 자생적으로 생성해 나가는 이론, 즉 “자기 성찰”을 감당해 나가는 이론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또한 방법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론은 “저항으로 변한다”라는 드 만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이론에의 저항을 극복할 수 없거니와, 이론 자체가 곧 저항이기 때문이다. 문학 이론의 목적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또한 방법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문학 이론은 저항으로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이론은 여전히 괴멸할 위협에 처하지 않고, 융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저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론은 더욱 더 융성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론의 언어가 바로 저항의 언어이기 때문이다.<sup>27)</sup>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는 이상의 두 언어, 즉 “저항의 언어”와 “이론의 언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누려는 시도였는지 모른다. 그와 같은 시도는, 이들의 논의 자체가 하나의 시사적 예가 되고 있듯이, 자기 모순이란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론의 언어”와 “저항의 언어”를 분리한 후, 어느 하나만을 취하여 다른 하나를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포기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오늘날 미국 문학 비평계가 〈이론〉과 관련하여 깨달아야 할 교훈일 것이며, 아울러 이십세기 후반 미국 문학 비평계에서의 〈이론〉에 대한 논의를 조망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것이다.

26) Frank Lentricchia, “On behalf of Theory,” *Criticism in the University*, ed. Gerald Graff & Reginald Gibbons (Evanston, IL: Northwestern UP, 1985), 109.

27) Paul de Man, “The Resistance to Theory,” *The Resistance to Theory*, 19-20.